

반도체 환경제어 장비기업 워트, 코스닥 상장 착수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 기술력 보유

장경윤 기자 | 입력 :2023/09/13 10:35 반도체 ·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환경제어 장비 전문기업 워트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워트는 반도체 핵심 공정 내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이하 THC)' 등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기업이다.



워트 본사 전경(사진=워트)

반도체 제조공정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공정환경 변화에 따른 민감도 역시 증가하는데, 워트는 THC를 통해 초정밀 온·습도를 제어해 반도체 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초기 일본 기업이 독과점 해왔던 반도체 설비에 대해 국산화를 선도했으며, 200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반도체 공정환경제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워트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 기술력이다. 초정밀 항온습 및 항온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정 온·습도 제어와 먼지 제거 등을 통해 365일 초정밀 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저비용 에너지 절감 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기술력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워트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립 이후 20년 동안 흑자 경영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최근 3개년 평균 25.2%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만큼 견고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다.

박승배 워트 대표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미세화·첨단화 추세에 따라 초정밀 공정환경제어 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연구개발(R&D) 등 선제적 투자를 통해 첨단 산업의 초정밀 공정환경 제어 전문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회사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워트가 공모하는 주식 수는 총 400만주로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5000원~5600원, 총 공모 예정 금액은 200억원~224억원이다.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 한 뒤, 10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저작권자 © ZDNet Korea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